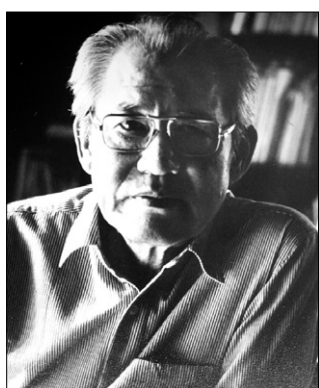


# 윤이상을 말하다

11월 8일까지 대학로 엘림홀서 공연

“절대를 추구하  
나 결코 그 곳에 도  
달할 수 없는 켈로  
의 G#음. A음에  
도달 할 수 없지만  
도달하고자 노력  
하는 것이 인간이  
야”



한 평생 음악을  
위해, 음악만을 바  
라보며 일생을 바  
쳤던 윤이상(1917

~1995·사진) 선생. 그런 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  
을까. 한국의 소리와 동아시아 철학을 바탕으로 서양음  
악 어법에 서양 악기의 몸을 빌어 노래했던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의 삶이 연극 ‘윤이상, 나비이마주’를 통해  
재현된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건물 로비에 ‘사  
상 최고의 음악가’ 44인의 명단에 올라 있으며, 생존 당  
시 ‘현존하는 유럽의 5대 작곡가’에 선정될 정도로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했던 조국에게는  
철저히 외면 받으며 평생 고국을 그리다 1995년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했던 윤이상은  
불경소리와 목탁소리에 음악적 영감을 얻을 정도로  
그의 삶과 작품에는 불교적 사상이 녹아져 있다.

이번 공연은 그런 윤이상의 삶과, 한 작곡가의 기억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현대사의 잔상을 바라보고  
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이다. 연극에는 선  
생의 초기가곡 ‘고풍의상’ ‘나그네’, 승무의 우아한 자  
태가 보일 것 같은 관현악곡 ‘바라’, 그가 그토록 보고 싶  
어 했던 강서고분 사신도의 영감을 받은 곡 ‘IMAGES’  
등 다수의 곡들이 연극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연극을 연출한 이동준 은세계씨어터컴퍼니 대표  
는 “연극 ‘윤이상, 나비이마주’는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  
해 경계의 벽을 허물고, 윤이상의 예술과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이 풀리지 않는  
마음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어 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  
해한 그의 음악은 연극 안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  
와 엮이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선지의 음표처럼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 안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고, 켈로처럼 열정적이었  
던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며, 그가  
들려주는 따뜻한 불교적 감성에 같이 녹아드는 시간이길  
기대한다.

이번 공연은 11월 8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엘림홀에  
서 공연되며 은세계씨어터컴퍼니가 주최하고 서울특별  
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재)서울문화재단·(재)윤이  
상평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02)747-2250 이은정 기자

# 피자교수, 책 사이에 일탈공간 만들어

최재목·박흥규 교수, 10월 19~23일 영남대 중앙도서관서 ‘러브 붓다’ 전시

지난 한 주는 중간고사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가장 바쁜  
시도 힘든 시간이었다. 시험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자  
연스레 시험기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만들며, 일탈을 꿈  
꾸게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영남대에서는 아이러니 하기도 시험  
을 치르는 학생들이 아닌 교수들이 일탈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  
졌다. 영남대의 일명 ‘ 피자교수’라 불리는 철학자 최재목(철학과),  
법학자 박흥규(교양학부) 교수는 10월 19~23일 영남대중앙도서관  
에 그들의 일탈공간을 만들었다.

“삶이 참 무료하게 느껴지더군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반복되  
는 일상에 영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연구 활동과 학  
교생활에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었죠. 그러다 결국 사고를 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평소 불교와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최 교수와 박 교수는 무료한  
삶의 돌파구를 찾다가 몇 년전 함께 미술전시를 가져 보자던 이야  
기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실현시켰다. 이들의 전시는 ‘러브 붓다’  
라는 제목으로 총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는데, 일탈을 꿈꾸는 이  
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서인지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작품들  
로 영남대 중앙도서관을 장엄했다.

실형정신이 돋보인 최재목 교수의 작품은 매니큐어, 매직, 치약,  
스티커 등의 다소 신선한 재료로 그의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작  
품들이다. 그의 작품에는 주로 붓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  
습은 노숙 달마, 양복 입은 반가사유상, 새색시 붓다, 한복 혹은 청  
바지를 입은 붓다의 모습 등 우리가 평소 상상할 수 없었던 발칙한  
발상으로 붓다의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 제목이 ‘러브 붓다’임에도  
최 교수가 그려놓은 붓다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최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한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부처님은  
싫었다. 불교에서 ‘만상만물’이라고 말하듯,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같이 있게 보고자 이렇게 붓다를 표현했다”며 “불교에 대한 매너  
리즘이 아닌 독창성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몇 번의 전시회 경험이 있는 박흥규 교수와 달리 최재목 교수는  
이번 전시회가 첫 전시회이다. 평소 취미로만 그림을 접해 자신의  
그림이 ‘낙화(落畵)’라 말하는 최 교수의 말과는 달리 그의 작품은



영남대 피자교수들로 불리는 최재목 교수(왼쪽)와 박흥규 교수.

독특하고 뛰어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최재목 교수의 작품을  
두고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한 박흥규 교수는 ‘이단아적 발상의 표  
현’이라고 말했다.

최재목 교수의 작품과는 반대로 박흥규 교수의 작품은 주로 풍  
경화와 인물화를 다뤘다. 7월 한 달간 인도를 여행하면서 스케치한  
것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수채 물감과  
파스텔로 그려진 사실적 묘사를 담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화려한  
터치와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웹시콜라’  
광고간판 아래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노숙자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성과 인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하  
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전시회를 열기까지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10여 년 전 법산 스님(대구 여래선원장)이 주축이 돼 ‘남전대장경’  
의 번역작업을 같이 시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은 비록 번역  
작업일은 도중에 무산됐지만 불교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그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본업이 인문학자인 이들은 “틀을 깨뜨려야 개성이 있고, 깨우침  
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철학·법학·문학·공화·음악·미술 연구 등  
모든 장르에 불교 사상을 ‘크로스-오버’ 시킨다.

자신들의 작품은 관심의 연속이며, 그것은 불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자신의 삶에 불교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요소라 말하  
는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끊임없이 틀을 깨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좀 더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불교사상이 밀바람이 된 음악 작곡도 발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표현기법만 다를 뿐 담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는 같을 수 있다”며 “스스로 장벽을 깨는 시도들을 통  
해 학생들은 물론 일반에게도 새로운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최재목·박흥규 교수.

앞으로 그들의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을 통해 좀 더 새로운 불교  
예술의 탄생도 기대해 본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타타 IN 붓다’ 화려한 퍼포먼스 눈길

11월 22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우리의 대표적 무도인 태권도를 동양의 대표 사상이 불교적  
인 내용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동양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는  
명품공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타마 신타라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뮤지컬 퍼포먼스 ‘타타 IN 붓다’ 가 드  
디어 선보였다. 10월 20일 프레스콜 현장에서 만난 ‘타타 IN 붓  
다’는 화려한 기술이 돋보이는 태권도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연출을 맡은 백재현은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엿  
보였지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만큼 이번 공연에 자부  
심이 남다르다는 의미이다.

‘타타 IN 붓다’는 2500년 전 인도의 왕자 신타라타와 노예장  
수 타타의 갈등을 그린 줄거리를 바탕으로 격파, 겨루기, 품새  
동작 등의 현란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뮤지컬에 출  
연진은 아시아역을 맡은 전문 배우 전수미와 임준길을 제외하  
곤 모두 연기경험이 없는 우석대학교 학생 40여 명으로 이뤄졌  
다. 연기에서 아마추어인 학생들이 뮤지컬에 출연한다는 이유  
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예상을 깨고 ‘타타 IN 붓  
다’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의 마  
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10월 20일 열린 ‘타타 IN 붓다’ 프  
레스콜에서 백재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재현은 “호흡을 중요  
시 하고 절도 있는 동작들  
이 대부분인 태권도의 특  
징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았  
다”며 “그럼에도 우석대  
학생들이 너무 훌륭히 소  
화해 줬다”고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그는 우석대 학  
생들의 무대와 연기 작을  
을 돕기 위해 3개월간 동거  
동락할 정도로 이번 공연  
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이번 공연은 기술적인  
면으로만 비교해도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의 서커스’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태양의 서  
커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공연으로 만들 것이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타 IN 붓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때까지 그의 고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보인다.  
이번 ‘타타 IN 붓다’ 공연은 11월 22일까지 국립극장 K청소  
년 하늘극장에서 공연된다. (02)3674-1010 이은정 기자

# 단청장 혜각 스님 서화전

통도사성보박물관서 12월 31일까지

평생을 단청장으로 화업을 수행 삼아 정진한 혜각 스님의 서화  
특별전이 10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통도사 성  
보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통도사 개산 136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혜각 스  
님이 평생을 수집해 기증한 서화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리이  
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한평생 문화  
재를 아끼고 전승 발전을 도모했던 혜각 스님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혜각 스님 기증 서화특별전과 더  
불어 근현대의 중요한 서화작품들과 일본 가노파 화가의 작품 등  
해의 작품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055)382-1001

이은정 기자

# 마음 VS 뇌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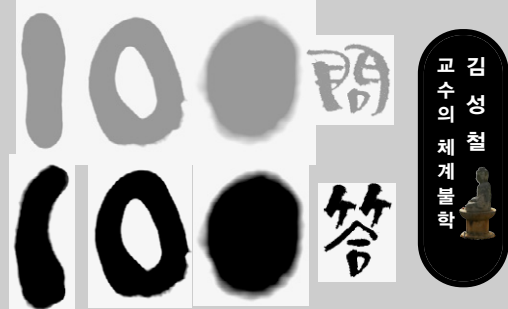
장현갑 지음 / 292쪽 / 13,800원

# 뇌가 마음을 조정하는가! 마음이 뇌를 조정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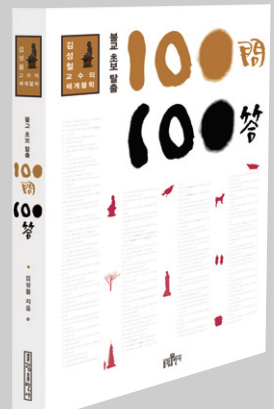
뇌가 마음을 조정한다는 생각은 **상식이다.**  
하지만 마음이 우리의 뇌와 몸을 바꾼다는 건 **실재!**

18세기 말 프랑스의 해부학자였던 프란츠 요제프 갈의 선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뇌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이 분야의 연구는 오직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집중했다. 그러나 얼마 전  
부터 정밀한 뇌 스캔이 가능해지면서 이 변하지 않는 뇌 이론은 점차 허물  
어졌다. 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뇌와 마음  
의 관계는 일방통행에서 점점 양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는 뇌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역시 뇌와 몸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불교 초보 탈출



경전에 근거해 바른 해답을 제시하는  
김성철 교수의 불교 초보 탈출 100문 100답!



김성철 지음 / 408쪽 /  
값 15,000원